

---

碩士學位 請求論文

# 燕巖小說의 諷刺性 研究

指導教授 玄 容 駿



國語教育專攻

金 光 洙

1989年度

---

# 燕巖小說의 諷刺性 研究

이를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提出者 金 光 洙

指導教授 玄 容 駿

1989年 月 日

---

金光洙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_\_\_\_\_ 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副審 \_\_\_\_\_ 인

副審 \_\_\_\_\_ 인

1989年 月 日

# 目 次

I. 緒 言 .....	1
II. 燕巖의 生涯와 時代的 背景 .....	5
1. 燕巖의 生涯 .....	5
2. 時代的 背景 .....	7
III. 燕巖의 現實認識과 文學觀 .....	9
IV. 燕巖小說에 나타난 諷刺의 樣相 .....	16
1. 諷刺와 諷刺文學 .....	16
2. 「兩班傳」에 나타난 諷刺 .....	19
3. 「虎叱」에 나타난 諷刺 .....	27
4. 「許生傳」에 나타난 諷刺 .....	33
V. 結 語 .....	42
○ 參考文獻 .....	45
○ Abstract .....	47

## I. 緒 言

朝鮮 後期 實學思想家이며 文學家인 燕巖 朴趾源(1737~1805)은 그의 作品 속에 담겨있는 近代的인 要素와 銳利한 諷刺로 인하여 많은 論議의 對象이 되어 왔고, 또한 韓國小說史上 한 획을 그은 大文豪로 崇仰되고 있다.

비록 그가 남긴 文學遺産 모두가 國文이 아닌 漢文으로 表記되어 있다는 限界의 아쉬움도 없지는 않으나 ‘세상의 잘못을 따지고 진실을 추구하자면 문학 창작에 힘쓰는 것이 가장 보람있는 일’<sup>1)</sup>이라고 여기는 철저한 作家意識 아래 獨創的 文學觀을 지닌 最初의 作家였다는 사실에서도 그렇고, 또 자신이 처한 時代的 狀況을 實學, 특히 利用厚生이라는 새로운 眼目으로 痛烈하게 批判하며 改革하려는, ‘保守와 退嚮으로 特怔화된 조선사회의 병리에 과감히 도전해 들어간 이상주의자’<sup>2)</sup>가 바로 燕巖 자신이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따라서 燕巖文學을 主題로 하는 많은 論議가 계속되어 왔고, 그 결과 몇 권의 單行本<sup>3)</sup>과 약 100여 편에 이르는 論文들이 發表되는 등 刮目할 만한 成果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燕巖文學을 통하여 近代小說의 起點을 끌어올리려는 作業들이 이루어져 注目을 받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폭넓은 研究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燕巖文學 全般에 걸친 總體的인 研究는 만족스러운 段階에 이르지 못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p.197.

2) 黃浪江, 「朝鮮王朝小說研究」, (檀大出版部, 1983.), p.298. ‘제6장 許生傳 Ⅲ. 結언’에서 許生을 評한 내용. 許生은 곧 作家의 分身이기도 하다.

3) 李家源의 「燕巖小說研究」, (乙酉文化社, 1965.)를 필두로 朴箕錫, 「朴趾源文學研究」, (三知院, 1984.), 姜東燁, 「熱河日記研究」, (一志社, 1988.), 金英東, 「燕巖小說研究」, (太學社, 1988.), 吳相泰, 「朴趾源小說作品의 諷刺性 研究」, (盤雪出版社, 1988.) 등이 있다.

4) 金一根, “燕巖小說의 近代的 性格”, (「慶北大論文集」1輯, 1956.)  
李佑成, “實學派의 文學—朴燕巖의 경우—”, (「국어국문학」16호, 1957.)

이는 그동안의 研究가 作品論과 作家論, 또는 文學思想이나 實學思想 등 어느 한쪽 으로부터 치우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간의 중요한 研究結果를 要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燕巖의 小說作品이 文學史書類나 小說史 其他 論說 등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30年代의 일이며, 그 先驅는 金台俊과 權憲奎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本格的인 研究는 1950年代 중반 이후에 나타나서, 金一根은 燕巖文學의 思想的 背景을 反封建性으로, 그리고 技巧面에서는 諷刺性을 抽出하여 先驅的 業績을 쌓았고,<sup>6)</sup> 이어 李佑成은 朴趾源의 實學者로서의 性格을 당시 社會的 背景 속에서 糾明하여 燕巖文學을 '士意識과 庶民意識이 交叉된 文學'으로 규정하고 있다.<sup>7)</sup> 이 두 편의 論文은 그 뒤 燕巖文學 研究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1965年 李家源은 이미 發表한 論文들을 묶어 「燕巖小說研究」<sup>8)</sup>를 出刊하여 作品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典據를 國內外 文獻에서 總網羅하여 収録함으로써 획기적 業績을 쌓았고, 1961年에 出刊된 「李朝漢文小說選」과 함께 이 分野 研究의 길잡이 구실을 하고 있다.

또한 李廷卓은 作品의 諷刺的 性格을 정리하였으며,<sup>9)</sup> 李源周, 李佑成 등이 각각 「兩班傳」·「虎叱」에 대한 作品論을 전개하였다.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作品論은 새로운 方法論을 모색하여 기존의 研究業績을 深化, 주로 「兩班傳」·「虎叱」·「許生傳」에 치중하는 傾向을 보였는데, 黃汎江,<sup>10)</sup>

5) 燕巖文學에 대한 연구업적은 閔丙秀, “朴趾源 文學의 研究史的 檢討”, (「韓國學報」 13輯, 一志社, 1978.), 朴箕錫, 「朴趾源文學研究」, (三知院, 1984.)에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6) 金一根, 앞의 논문.

7) 李佑成, 앞의 논문.

8) 李家源, 앞의 책.

9) 李廷卓, “燕巖小說에 나타난 諷刺研究”, (安東教大論文集, 1969.)

10) 黃汎江, 앞의 책

蘇在英,<sup>11)</sup> 成賢慶<sup>12)</sup>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들 연구의 공통 관심사는 「虎叱」의 作者 問題로, 그 중 黃涓江은 文學의 상징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方法論的 可能性을 보여 주었다.<sup>13)</sup>

한편, 燕巖의 思想과 文學觀에 대한 研究로는 李東歡, 趙東一, 姜東燁, 金英東의 論文이 있다.<sup>14)</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燕巖文學에 대한 연구는 作家論이나 作品論, 社會的 性格 등 어느 한쪽으로만 偏重된 나머지 燕巖文學 전반에 걸친 總體的인 統一性을 이루지 못하는 미흡한 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특히 당시 文壇에 팽배해 있던 擬古의 文風에 批判的 姿勢를 취하고 現實에 바탕을 둔 個性的 獨創的 文學世界를 구축해 나간 燕巖의 경우, 먼저 社會現實에 바탕을 둔 社會史的 側面에 대한 研究가 이루어져야 本質에 보다 가까이 接近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燕巖小說<sup>15)</sup> 중에서 그간 先學들에 의해 많은 論議가 이루어져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여겨지는 「兩班傳」·「虎叱」·「許生傳」 세 편

11) 蘇在英, “虎叱” 再論 : (崇田語文學 2호, 崇田大, 1973.)

12) 成賢慶·李相澤,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社, 1983), pp. 396~433, “虎叱 研究.”

13) 黃涓江, 앞의 책, “虎叱研究”에서 文學의 상징적 기능을 바탕으로 등장인물과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고, 사회적 맥락 뿐만 아니라, 문학적 맥락에서 작품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14) 李東歡, “燕巖의 思想과 小說”, (古典文學을 찾아서, 文學과 知性社, 1976).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 試論」, (知識產業社, 1978)

姜東燁, “朴燕巖의 社會批評樣相”, (東岳語文論集 第十三輯, 1980).

金英東, “燕巖朴趾源의 文學觀”(東岳語文論集 第十五輯, 1981).

15) 燕巖이 남긴 <放孺閣外傳>속의 9篇의 ‘傳’과 <煙湘閣選本>의 「烈女咸陽朴氏傳」, <熱河日記> 「關內程史」의 「虎叱」, 「玉匣野話」에 실린 「許生傳」에 대해서는 그간 학자들 사이에 그 명칭이 다양하였으나, 本稿에서는 이 작품들을 ‘문예적으로 승화된 문학작품’(張德順, “漢文小說의 再認識”, 創作과 批評 31호, 1974, p.132)으로 보아 모두 燕巖小說이라는 用語로 쓰고자 한다.

의 作品을 택하여 社會史的 側面에 바탕을 둔 實證主義的 研究方法으로 作品 속에 나타난 諷刺의 樣相을 抽出하고, 문제가 제기되었던 部分들에 대해 精確한 分析을 가함으로써 燕巖文學의 理解를 위한 總體的 接近을 시도하고자 한다.



## II. 燕巖의 生涯와 時代的 背景

### 1. 燕巖의 生涯

朴趾源(號는 燕巖·煙湘·洌上外史, 字는 仲美·美仲)은 英祖 13年(1737) 서울에서 出生했는데, 本貫은 所爲 華胄·顯閥인 潘南朴氏로 朝鮮 初부터 서울의 두드러진 兩班 家門이었다. 燕巖의 五代祖인 瀾만 하더라도 宣祖의 駙馬 金陽慰였고, 그의 祖父인 弼均 역시 京畿道 觀察使를 거쳐 知敦寧府事에 오른 분이였다.

그러나 그의 父 朴師愈에 이르면 전혀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고 따라서 燕巖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過庭錄><sup>16)</sup>의 記錄은 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곧 그의 집안이 沒落한 兩班 階層에 속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經濟的 궁핍은 本格的 文章工夫마저도 더디게 만드는 것이었다.

16歲(1752)에 遺安公 李輔天(?~1977)의 딸에게 장가 든 후에야 本格的으로 文章工夫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妻叔 學士公 李亮天(1716~1755)에게서 太史公의 <史記>를 통해 문장 쓰는 법을 배운 지 얼마 안되어 「項羽本紀」를 모방하여 「李忠武公傳」을 지어 學士公 李亮天에게 보였더니, 公이 보고 '班固와 司馬遷의 경지에 이미 도달했다'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일찌기 非凡한 文才를 보이고 있다.<sup>17)</sup>

우리 집안은 본래부터 청빈했으며, 증조부 章簡公(燕巖의 祖父인 朴弼均의 號: 筆者註)은 청렴결백하고 검소하여 집안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家法이 또한 엄격하여 조부님들 형제가 하루 종일 한 방에 시립하고 있었으며, 선군 형제(燕巖의 兄弟: 筆者註)는 책을 펴놓고 공부할 장소가 없었다.<sup>18)</sup>

이같이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燕巖은 결국 16歲 이후에야 科試를 위한 본격적인

16) 朴宗采: “나의 아버지 朴燕巖(原題: 過庭錄)”, 宋旭譯, 文學思想 20, 1974.

17) 朴宗采, 앞의 책, p. 373.

18) 朴宗采, 앞의 책, p. 373.

文章工夫에 들어설 수 있었고, 處士 李輔天과 李亮天의 教育이 그의 性格 形成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 시기에 沒落한 兩班 階層임을 自覺하게 된 것은 그의 初期 漢文小說에서부터 나타나는 諧諷的 現實批判의 姿勢와 밀접한 關聯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 時期 그는 才能은 있으나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불우하게 살아가는 부류들과의 交遊를 통하여 世上에 대한 不滿을 해소했는데, 이 때 싹튼 自我階層에 대한 批判意識은 燕巖文學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고, 나이 35세(1771) 이후 다시는 科擧에 應試하지 않게 만든 것이었다.

科擧를 廢한 뒤, 나이 36~7세(1772~1773)에 妻子를 妻家로 보내고 홀로 典醫監洞의 寓舍에 거처하며 平生의 志友인 湛軒 洪大容, 石癡 鄭詰祚, 薑山 李書九 등과 交友하였으며 李德懋, 朴齊家, 柳得恭 등과 함께 實學에 沒頭하였다. 洪國榮이 重用되어 政權을 잡게되자 燕巖은 禍를 피하여 黃海道 松京 근처의 燕巖峽에 遁居하기도 했는데, 나이 44세(1780) 여름 三從兄 朴明源(1725~1790)의 권유로 中國使臣을 따라 熱河를 旅行하고 돌아와 名著「熱河日記」를 저술하기도 했다.

50세(1786)에 繕工監監役을 시작으로 그의 出仕가 시작되어 義禁府都事, 齊陵令 등을 거쳐 55세(1791) 漢城府判官에서 安義縣監으로 나가 60세(1796)까지 在任했다. 安義縣監 在任時 正祖가 直閣 南公轍을 불러「熱河日記」의 文體를 비판하고, 속죄하는 뜻으로 醇正한 글을 朴趾源에게 지어 바치도록 命하기도 했다.

沔川郡守에 在職하던 63세(1799) 3월 正祖에게「課農小抄」에다「按說」「限民名田議」를 붙여 撰進했으며 64세(1800) 襄陽府使로 昇進하였다가 이듬해 사임하고 서울로 돌아와 69세(1805)를 一期로 세상을 마쳤다.

이상과 같이 燕巖의 生涯를 살펴보면 대략 그의 生涯를 3期로 區分할 수 있는데, 제1기는 35세(1771) 科擧를 廢할 때까지의 文章修業期로, 정신적 갈등과 좌절 속에서도 現實에 대한 냉정한 認識을 토대로 批判意識을 키워 나갔던 시기이며,

제2기는 文筆活動에 專念하면서 實學思想을 確立해 나갔던 時期로 볼 수 있다.

제3기는 50세 이후로, 過去의 反抗的 生活에서 벗어나 出仕하여 제2기에 確立한 자신의 理想과 포부를 실천에 옮기려 했던 시기로, 出仕 이후의 行적에서는 특히 그의 作品에 나타나는 실학사상의 흔적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뒤의 作品

論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 2. 時代的 背景

朝鮮時代의 社會構造는 여러 階層이 중첩되었으나 이를 簡明하게 나눈다면 非生産的 消費生活을 하는 소위 上流階級과 이들을 먹여 살리면서 収奪과 榨取의 對象이 되는 下流階級の 二大部分으로 나눌 수 있다.<sup>19)</sup>

그런데 제한된 行政機構는 數的으로 증대되는 官僚候補者 新進士大夫들을 전원 收容할 能力을 喪失했으므로 官權 爭奪의 激化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宣祖朝에 이르러 드디어 東西分黨이라는 一大分裂을 가져왔으며 肅宗 때에 이르러 오랜 權力 투쟁을 거쳐 宋時烈的 老論을 中心으로 하는 閥閥이 形成되어 士大夫들의 階層的 分化가 불가피해졌다. 즉, 老論은 政治의 實權을 獨占하여 그들의 子弟를 不正으로 科擧에 合格시켜 特權의 地位를 世襲化하기에 이르렀고, 그 反面 沒落한 兩班들은 治者階層의 身分을 잃어버리고 '士'라는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하게 되어 執權支配階層인 閥閥과 疎外된 士階層으로 兩分되어 그 갈등이 深化되었음을 뜻한다.

日帝時代까지 存續한 嶺南의 소위 兩班門戶라는 것은 立身揚名의 꿈을 포기하고 兩班地主나 土豪로 成長한 士階級の 集團을 의미하는데, 燕巖小說 「兩班傳」에 등장하는 '旌善兩班'은 바로 이 沒落한 治者의 典型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 및 近畿地方의 士群은 地理的 經濟的 與件으로 말미암아 이것마저 許容되지 않았으니, 失權한 士大夫, 즉 士가 三南을 내려가면 代代로 身分을 유지할 수 있지만 近畿一帶에 남아있는 이들은 얼마 안 가서 平民으로 轉落하였다는 「擇里志」의 記錄은 이를 뒷받침한다.<sup>20)</sup>

近畿地方의 士의 一派가 對自我意識에 눈뜨게 되는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現實에

19) 李相佰, 「韓國史」, 震檀學會編, (乙酉文化社, 1965), p. 276.

20) 李重煥, 「擇里志」, 京畿道篇, (大洋書籍, 1978), p. 132.

揚州 抱川 加平 永平爲 東郊, 高陽 積城 坡州 交河爲 西郊, 二郊 俱土薄民貧, 少可居處, 士大夫家貧失勢, 下三南者, 能保有家世, 出郊者, 寒儉凋殘, 一二傳之後, 多夷爲品官, 平民矣.

서 연유한다. 燕巖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庶民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가혹한 現實을 체험해야 했으며, 이 체험은 支配層에 대하여 자신을 峻烈히 區分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士階級の 肯定的이고도 主體的인 努力은 實學이라는 새로운 學風을 낳게 한 것이다.

한편 燕巖이 살았던 18世紀 後半에 우리 社會 內部에서 資本主義가 싹트기 시작하는데, 이는 貢人을 中心으로 하는 商業資本主義의 발달과 自由商人인 私商, 保負商 등의 活動으로 商業의 發達과 독립적 手工業이 일어나 社會的 轉換을 招來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뜻한다. 獨占의 都賣商인 都賈가 생겨 平民巨富의 出現을 낳게 만든 이 資本主義의 기틀은 「許生傳」 「兩班傳」 등의 作品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7世紀부터 널리 보급된 벼의 移秧法과 직과법인 畝種法은 農村社會를 變化시켜 企業的 富農의 형태인 廣作農과 平民地主를 낳게 하였다. 平民地主인 廣作農은 一定한 量의 곡식을 바치고 空名帖을 사서 兩班 身分으로 上昇하는 일도 있었고, 그 반대로 黃口僉丁, 白骨徵布 등의 苛斂誅求에 견딜 수 없어 離農하는 流亡民이 증가하는 등 격심한 身分의 上昇과 下降 현상을 보이기도 했으며, 譯官 등 中人 階級이 私貿易으로 富를 축적하여 社會的 영향력을 확대하는가 하면, 西學의 傳來 地方勢力이 점차 커져가는 추세를 보여 少數家門에 의한 支配體制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



### Ⅲ. 燕巖의 現實 認識과 文學觀

燕巖이 살았던 18世紀 前半은 분명 變革의 時代요 轉換期였다. 壬亂·丙亂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일기 시작한 한국 儒學의 '尊華攘夷'思想은 學問의 次元을 넘어서 정치적 문제로 發展하였다. 이 속에서 燕巖이 주장하던 利用厚生이 思想은 소위 北學論이라 하여 淸의 先進文化를 받아들여 自立의 길로 들어서고자 한 그의 생각의 발로였다.

그러나 尊華攘夷思想은 北伐論으로 이어져 思想的 對立을 낳았으며, 이것은 다시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하여 燕巖이 克服해야 하며 또 새로운 하나의 學風을 구축해야 하는 二重的 苦痛에 처하게 되었다.

所謂 北伐論은 尤庵 宋時烈에 의해 主導되었고 儒學의 王道思想에서 유래되는 明나라와 朝鮮王朝의 관계는 [以大事小者樂天者, 以小事大者畏天者] 淸나라의 建國과 胡亂에 의하여 霸道思想으로 變質되었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宋時烈의 朱子學을 中心으로 한 극단적인 教條的 姿勢<sup>21)</sup>가 당시 朝鮮王朝와 淸나라와의 관계에서 큰 影響력을 행사하였다.

일찌기 中國에서, 金나라에 대한 宋나라의 굴욕적 화의에 반대하여 失地를 회복하고자 反金的攘夷思想을 주장한 朱子의 理論이 관철되었던 것과 같이, 淸나라에 대한 宋時烈을 中心하는 당시 朝鮮朝 儒學者들의 주장은 설득력과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思想은 朝鮮朝 後期 韓國儒學의 對外的인 排他性, 對決性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現實을 直視하고 改革하고자 노력한 것이 燕巖을 위시한 實學思想에 입각한 知識人들의 움직임, 곧 利用厚生을 주장한 北學派였다.<sup>22)</sup>

21) 李東歎, 「燕巖朴趾源」(玄岩社, 1976)과 李佑成, 「實學의 社會觀과 漢文學」, (「韓國思想大系」(1), 成大大東文化研究院, 1973.)에서 北伐論을 中心으로 하는 朱子學의 教條的 양상과 權威主義에 대하여 詳述하고 있다.

22) 姜東燁, 「熱河日記研究」, 一志社, 1988. pp. 30~31.

곧 燕巖 朴趾源은 當代 北學의 巨頭인 李德懋, 朴齊家, 柳得恭, 李西九 등 後漢學 四大家들과 더불어 淸의 先進文化 섭취를 주장했던 北學派의 한 사람이며, 湛軒 洪大容 등과 더불어 實學의 研究에 沒頭한 先驅者이기도 했다.

‘北學’이란 楚亭 朴齊家(1750~?)의 말대로

輒隨其俗之可以行於本國，便於日用者，筆之於書，並附其爲之之利與不爲之弊，而爲說也，取孟子陳良之語，命之曰北學議。

(그 나라의 習俗 중에 우리나라에서 본받을 만한 것과 날마다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을, 듣고 보는 대로 붓으로 적고, 또 시행해서 이로온 것과 폐가 되는 것을 붙여 적어서 풀이한 다음, 孟子가 陳良을 말한 것을 따서 「北學議」라 이름하였다.)<sup>23)</sup>

孟子가 陳良을 말한 「孟子」 藤文公 上篇에서 取하고 있는데, 北學派의 學者들은,

苟便法良而美制，則固將進夷狄而師之。

(진실로 법이 좋고 제도가 아름다우려면 아무리 오랑캐라 할지라도 멋있게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sup>24)</sup>

라는 燕巖의 말대로 淸나라에 들어가 그 우수한 先進文化를 직접 보고 淸朝의 文物을 수입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들의 思想은 「燕巖集」을 비롯하여 朴齊家의 「北學議」, 洪大容의 「湛軒集」, 李德懋의 「靑莊館全書」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은 前近代意識에 대립되는 近代意識 내지 近代指向意識, 沒民族主義에 대립되는 民族意識을 표방하고 있는데, 燕巖이 反朱子主義的 立場에서 實學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가치를 높이 들게 된 것은 앞장에서 살핀 것과 같이 몰락한 兩班이 몸소 體驗해야 했던, 오로지 ‘硯田筆耕’에 매달려 자기를 지켜야 했던 ‘가난’이라는 極限狀況에서 起因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이러한 社會的 狀況과 아울러 燕巖 자신이 타고난 革命的 抵抗的

23) 朴齊家, 「北學議」, (大洋書籍, 1978), pp. 231, 233. ‘北學議序’. 번역문은 李錫浩의 것을 따름.

24) 朴趾源, 「燕巖集」, 影印本(景仁文化社, 1974) 卷 7, p. 105. ‘北學議序’. 번역문은 李錫浩의 것을 따름.

氣質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는 어릴 때부터 志氣가 높고 통상의 어떤 규범에 구애되지 않았으며 재질이 탁월했고 內剛하고 과격한 면이 있었다고 한다.

매양 일과 행동에 있어서 그 大體와 法綱에는 한결같이 근엄하고 절도가 있어서 비록 上官일지라도 반드시 쟁투를 따지시었다.<sup>25)</sup>

게다가 그는 思想 내지 의식에 있어서 司馬遷의 '史記'와 莊周의 '莊子'의 그것들을 수용한 흔적이 역연하다. '史記'나 '莊子'는 다같이 그 사상 내지 의식에 있어서 다분히 革命的이요 異端의인 것이다.<sup>26)</sup>

특히 都市的 寡團氣 속에서 자라난 燕巖의 경우는 商工業 分野와 밀접한 聯關을 가지면서 利用厚生을 표방하고 나선 것으로 淸文化 예찬이 아닌 現實에 대한 改革의 意慾을 보이고 있다. 즉, 商工業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技術 發達로 生産을 促進시키고 수레와 배같은 교통기관을 발전시켜 國內外에 상품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國富를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身分制를 폐지하고 能力에 따른 分業을 실시하여 安民을 이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燕行을 통하여 淸文化의 우수성을 인식, 조선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뛰어난 識見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암의 世界觀은 自然 내지 宇宙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기초 위에 成立되어 있다. 그의 과학적 인식은 地轉說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구·해·달이 球體로서 虛空에 떠 있다는 이론인 金錫文의 三丸浮空說에서 발전된 洪大容의 地轉說에서 도출받은 것이다. 이 지전설의 內容은 泰西人들은 땅이 둥글다는 것만을 알았지 땅이 球體로서 회전 운동을 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하고, 지구가 일전하면 一日이 되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一朔이 되고,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면 一歲가 된다.<sup>27)</sup> 는 것을 言及한 것이다. 또 宇宙萬有는 둥글다고 전제하고, '圓者必轉'이란 命題를 세워, 지구가 부패하여 潰散하지 않는 것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例를 들어

25) 朴宗采, 앞의 책, p. 347.

26) 李東歡, "燕巖思想의 理念的 범주와 反朱子主義性", 文學思想 29호, 1975. p. 427.

27) 李東歡, "朴趾源論" (「燕巖研究」, 車溶柱편), 啓明大出版部, 1984, p. 58.

모든 것은 움직이는 데서 生命을 가지고 정지하는 데서 死滅한다는 생각을 시사하였다.

그는 또 「北學議序」에서 만일 학문을 하려 한다면 중국을 버리고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北學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所謂四民 僅存名目 而至於利用厚生之具 日趨因窮此無他 不知學問之過也 如將學問舍中國而何然.

(소위 士農工商의 四民이라는 것은 겨우 명목만 남았고 利用厚生の 도구는 날로 곤궁해지기만 한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학문하는 道를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장차 학문을 하려면 중국을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sup>28)</sup>

그러면 이제 燕巖의 文學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그의 文學觀은 여러 곳에서 披瀝되고 있는데, 그 두드러진 글로 「嬰處稿序」·「贈左蘇山人」·「楚亭集序」·「驪壇赤幟引」·「孔雀館文稿 自序」·「答蒼涯」·「綠天館集序」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文學論을 제시한 글에서 우리는 그가 당시의 기존 질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지녔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주어진 현실에 墨守하는 성격의 所有者가 아니라 무엇인가 좀 더 새롭고 合理的인 方向을 追求하는 性格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연암의 문학관은 우선 法古에서 變할 줄 알고 翻新에서 典雅할 수 있는 '法古翻新'의 고귀함을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

噫 法古者 病泥跡 翻新者 患不經 苟能法古而知變 翻新而能典 今之文 猶古之文也.

(옛것을 본받는 사람들은 옛것에 얽매어 벗어나지 못함이 병이요, 새것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그 不經됨이 근심이다. 진실로 능히 옛것을 본받으면서도 변화할 줄 알고, 새것을 창조해 내면서도 능히 전거가 있다면 이 시대의 글이 옛 시대의 글과 같게 될 것이다.)<sup>29)</sup>

28) 朴趾源, 「燕巖集」, 影印本 (景仁文化社, 1974) 卷 7, 〈北學議序〉. 번역: 李錫浩. 이 影印本은 朴榮喆篇 「燕巖集」(新鉛字本, 1932) 6冊 19卷을 一冊으로 壓縮한 것임

29) 「燕巖集」 卷1, 〈煙湘閣選本〉 楚亭集序.



둘째, 문장은 寫意에 그쳐야지, 妄想이나 假飾이 스며들어서는 안된다는 ‘寫實爲主’의 문장론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사실주의 문학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表現에 대한 비유로 귀울림(耳鳴)과 코골기(鼻鼾)의 예를 들고 있다. 이는 자기만 아는 사실을 남이 몰라줌을 귀울림의 비유로 설명하고, 남이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을 코골기의 비유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하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장이란 사실을 꾸밈없이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함으로써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담고 있다.

以是觀之 得失在我 毀譽在人 譬如耳鳴而鼻鼾 小兒嬉庭 其耳忽鳴 啞然而喜 潛謂鄰兒曰 爾聽此聲 我耳其嚶 奏釋吹笙 其團如星 鄰兒傾耳相接 竟無所聽 悶然叫號 恨人之不知也 嘗與鄉人宿 鼾息磊磊 如哇 女嘯 如嘆 如噓 如吹火如鼎之沸 如空車之頓轍 引者鋸吼 噴者豕狗 被人提醒 勃然而怒曰 我無是矣 嗟乎 己所獨知者 常患人之不知 己所未悟者 惡人先覺 豈獨鼻耳有是病哉 文章亦有甚焉耳。

(이렇게 득과 실이 나에게 있고, 훼손과 명예가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귀울림과 코골기의 비유가 있다.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갑자기 귀가 울리자 아연히 기뻐하며 옆집 친구에게 속삭이기를, “너 이 소리가 들리니? 나한테는 피리소리 생황소리가 별처럼 동그랗게 들리는데…….” 그러나 그 친구가 귀를 맞대고 아무리 들어봐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고 하자, 그 아이는 딱하다는 듯이 남이 자기에게 들리는 것을 들어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한번은 밤에 시골사람과 함께 잠을 자는데, 그 사람이 피곤하여 코를 몹시 골았다. 그 소리가 음식 토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불을 불거나 술이 끓어 나는 소리와 같이 소란하고 혼잡하였다. 또, 빈 수레가 털털거리듯 하여 숨을 들이쉬는 때는 마치 톱질을 하는 듯하고, 내설 때는 돼지가 씨근거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참다 못해 함께 자던 사람이 흔들려 깨우자 그는 발연히 화를 내며, 내가 언제 코를 골았느냐고 항변하였다. 아! 자기가 홀로 아는 자는 늘상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먼저 깨달은 것을 싫어한다. 어찌 코와 귀에만 병이 있으리오! 문장에도 역시 심함이 있도다.)<sup>30)</sup>

30) 「燕巖集」卷3, 孔雀館文稿 自序.

여기에 잘 나타나 있듯이 燕巖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항상 자기의 主張만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신의 결함을 지적해 주는 남을 못마땅해 하는 풍조를 비판하면서, 사실주의적인 문학관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

또한 연암은 文學의 表現에 있어 너무 아름답고 品位있는 用語만을 使用하여 분장하려고 함으로써 現實을 잘못 表現할 危險性을 지적하고,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생생하게 나타낼 것을 주장하였다.

語不必大道 分毫釐所可道也 瓦礫何棄 故樛杻惡獸楚史取名 椎埋劇盜 遷固是叙 爲文者惟其眞而已矣.

(말은 반드시 큰 뜻(大道)을 담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한 푼, 한 毫, 한 釐만한 일도 다 말할 만한 것이다. 기왓장이나 자갈이라고 해서 어찌 내버리겠는가? 그러기에 도올은 나쁜 짐승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楚史에서 그 이름을 취했고, 사람을 죽이고 무덤을 파헤치는 흉악한 도적의 무리에 대해서도 司馬遷이나 班固가 그의 책에서 다루었던 것이다. 대체로 글이란 오직 그 진실됨이 중요한 것이다.)<sup>31)</sup>

그리고 연암은 寫實的인 表現과 더불어 상스러운 日常語와 예사 사람들의 平凡한 이야기나 아이들의 노래 및 마을의 상말까지도 市井의 生活相을 그대로 描寫하기 위해 적극 受容해야 함을 주장한다.

苟得其理 則家人常談 猶列學官 而童謳里諺 亦屬爾雅矣 故文之不工 非字之罪也 彼評字句之雅俗 論篇章之高下者 皆不識合變之機 而制勝之權者也.

(진실로 그 이치를 얻은즉 집안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가 오히려 學官과 나란히 서게 되고, 아이들의 노래나 마을의 비속한 말이 爾雅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글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은 문자의 죄가 아니다. 저 字句의 雅俗을 평하고, 篇章의 높고 낮음을 논하는 자들은 모두 合變의 기틀과 制勝의 方法을 알지 못한다.)<sup>32)</sup>

여기서 ‘合變’이라 함은 “부분적인 要素를 합쳐서 部分的인 要素들이 원래 지니지

31) 「燕巖集」卷3, 孔雀館文稿 自序.

32) 「燕巖集」卷1, 駱壇赤幟引.

않고 있던 새로운 뜻을 만들어 내는 變化”<sup>33)</sup>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變通의 한 方法이다.

끝으로 연암이 正祖의 文體變革에 대한 叱責을 전하는 南公轍의 편지에 답하여

況如僕者 中年以來 落拓潦倒 不自貴重 以文爲戲 有時窮愁無聊之發 無非駁雜無實之語 自同俳優 資人諧笑 固已賤且陋矣 性又懶散 不善取檢 未悟雕蟲畫蘆之技 既自誤 而人誤.

(나같은 사람은 중년이래 落拓하여 쓰러져 자신을 귀히 여기히 않고 글로써 유희를 일삼았다. 때로 궁색한 근심과 무료함이 느껴지고, 잡되고 무심한 말을 일삼고, 배우처럼 남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천하고 비루하다. 성벽 또한 게으르고 산만하여 몸을 단속하는 데도 바르게 하지 못하였다. (나의 글쓰는 재주가) 벌레를 새기고 갈대를 그리는 정도의 기술임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자신을 잘못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誤導하였다.)<sup>34)</sup>

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반성과 또 한편으로 落拓不遇한 處地에서 그릇된 社會를 諧謔적으로 조롱하고 풍자하는 態度를 보인 점인데, 이는 바로 모순된 社會를 告發하고, 批判하는 그의 치열한 文學精神을 보여주는 一面인 것이다.



33)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知識產業社, 1982), p. 263.

34) 「燕巖集」卷2, 答南直閣公轍書.

#### IV. 燕巖小說에 나타난 諷刺의 樣相

燕巖小說을 論議한 기왕의 모든 論文에서 거의 共通的으로 言及되고 있는 主題는 近代意識을 바탕에 깔고 있는 諷刺性을 導出하는 문제로 보인다.

「요컨대 燕巖의 小說은 現實의인 素在, 細密한 構成, 簡潔하면서도 正確하고 寫實的인 表現, 對話의 妙味, 生動하는 人物의 性格, 心理의 描寫, 諷刺主義의 主題 등으로 보아서 近代文學의 性格을 띤 作品이라 할 수 있으며, 作者 燕巖은 李朝時代의 作家 중 에서 唯一한 短篇小說家였다고 하겠다.」<sup>35)</sup>

또한 燕巖 자신도 正祖의 文體反正에 대한 변명에서 〈자기가 불우해진 탓에 ‘以文爲戲’했을 따름이고, ‘문장을 빌어 꼭두각시 놀음같은 不平之氣를 써서 장난거리로 삼았으니’ 反省해 마땅하다.〉<sup>36)</sup>고 하였는데, ‘以文爲戲’는 ‘以文爲教(글로 교화를 베풀)’에 대한 반발로 풍자와 해학을 일삼는 下層藝術의 새로운 動向과 氣脈이 통하는 자세라 하겠다.<sup>37)</sup> 이러한 술회는 연암 자신이 이미 풍자야말로 무엇보다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效果的으로 전달하는 方法임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反證이기도 하다.



##### 1. 諷刺와 諷刺文學

本稿에서는 燕巖小說 속에 나타난 諷刺의 양상을 추출해내는 것이 주된 作業이다. 이 목적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먼저 諷刺의 概念을 正確하게 理解하고 把握하는 데서 그 據點을 잡아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먼저 諷刺의 概念을 살피고 諷刺

35)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二友出版社, 1981), p. 469.

36) 「燕巖集」卷2, 答南直閣公撤書.

「…中年以來 落拓潦倒 不自貴中 以文爲戲…」

3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p. 198.

文學의 定義를 내려 보고자 한다.

諷刺란 人間生活, 특히 同時代의 社會의 缺陷, 惡弊, 錯誤, 不合理를 指摘하고 嘲笑하여 일종의 諧謔의 表現效果를 나타내고자 하는 文藝의 一種으로, 항상 現實에 대한 否定的, 批判的 態度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點에서 아이러니와 恰似하여 예리하고 노골적인 공격의 의도를 품고 대상의 약점을 폭로 규탄한다. 그러나 그것은 譏刺(sarcasm)와 같이 파괴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랄하고 통렬하게 조소하는 것으로 始終하는 것이 아니고, 또 嘲笑(cynicism)와 같이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로 人生을 白眼視하고 冷笑하여 그치는 것이 아니고 비난 공격의 뒤에는 矯正과 改良의 目的을 갖는 것이다.<sup>38)</sup> 따라서 諷刺는 多樣性을 가지게 되는데 Melville clark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풍자는 愚行의 폭로와 邪惡의 懲罰이라는 두 點을 諷刺世界의 焦點으로 하여 타원형을 그리며 往復運動을 한다. 풍자는 輕薄한 것과 眞摯한 것 사이를, 그리고 아주 些少한 것과 몹시 教訓的인 것 사이를 往復하며, 극히 유치하고 잔인한 것으로부터 고도로 洗練되고 우아한 것에 이른다. …(中略)… 어떠한 手段이라도 단독으로, 또는 混合시켜 使用한다. 또한 풍자는 wit(機智), ridicule(嘲弄), irony, sarcasm(비꼼), cynicism(嘲笑), sardonic(冷笑) 및 invective(욕설), 즉 풍자의 스펙트럼帶에 있는 모든 語調를 使用함으로써, 그 表面을 다양한 色相으로 變化시킨다. (Studies in Literary Mode <文學樣式의 研究>)<sup>39)</sup>



그러나, clark의 表에 의하면 irony는 풍자의 한 語調이기는 하지만, 풍자적인 irony도 存在하며 諧謔과 밀접한 關係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魯迅은 「中國小說史略」에서 「儒林外史」를 풍자소설로 규정하여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풍자소설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魯迅의 뒤를 이은 연구 끝에 풍자의 개념이 完備되었는데, 그들은 풍자소설의 작가는 첫째, 諷刺하는 대상의 私怨을 넘어서 비평을 담은 勢道이어야 한다고 했고, 둘째, 讀者로 하여금 떳떳하게 풍자한 이유를 알도록 해야 하며, 이 두가지 어려움을 克服하는 데는 어휘 使用에 있어서 가

38) 齊藤勇; 「世界文學辭典」, 研究社, 1956, p. 830.

39) Arthur pallard; 「諷刺」 宋洛憲譯,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2, pp. 9~10.

법계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으나 지나치게 하면 욕지거리가 되는 것은 풍자의 진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써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40)</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풍자라는 개념 속에는 다음 몇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諷刺는 崇高美, 優雅美, 悲劇美, 喜劇美(滑稽美) 등의 美的 범주 중 '喜劇美'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2) 諷刺는 本質的으로 社會的인 文學樣式이다. 즉, 社會의 缺陷, 惡弊, 愚行, 惡德 등을 지적하여 비꼬고 조소하며, 공격하는 文藝의 一種이다.
- (3) 諷刺는 대상에 非力的이다. 따라서 풍자 작가는 풍자 주체를 통해 대상을 비난, 공격, 폭로할 경우에 正攻法을 쓰지 않고, 內攻的 陰險性과 潛行的 複雜性을 띠게 된다.
- (4) 풍자의 주제는 가치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領域은 輕薄한 것과 眞摯한 것을 다 망라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 (5) 諷刺는 대상의 약점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부정적, 비평적 태도를 가진다.
- (6) 諷刺는 矯正과 改良의 목적을 가진다.
- (7) 諷刺는 形式보다는 tone을 통하여 효과를 노리며, 그 효과를 위해 wit, irony, ridicule, cynicism 등의 方法을 총동원한다.<sup>41)</sup>

또한 諷刺에는 세 가지 類型이 있는데, 첫째는 人間性的인 諷刺, 둘째 政治的인 諷刺, 마지막으로 인류 전체에 대한 풍자가 그것이다. 그 중 政治的인 諷刺는 社會相의 矛盾과 缺陷을 지적하는 풍자까지를 포괄하며 作家와 現實의 對立 狀況에서 이 부류의 작품들이 가장 많이 量產되었는데, 燕巖의 作品은 바로 이 政治的인 諷刺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諷刺文學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자.

40) 陳寧寧, "朝鮮朝實學派 文學과 清代文化와의 聯關性에 관한 研究", 建國大博士學論文, 1987, pp. 24~25.

41) 文德守編, 「世界文藝大辭典」, (成文閣, 1975.)

諷刺文學이란 諷刺精神으로 人物이나 社會의 矛盾·不合理 등을 파헤치는 文學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時調, 詩, 小說, 隨筆, 假傳, 판소리, 戲曲 등 文學의 모든 장르에서 表現되어지고 있다. 韓國諷刺文學의 淵源은 新羅 26代 眞平王 때 金后稷의 王者之戒로 임금을 諷刺한 '諫獵文'과 31代 神文王 때 薛聰의 '花王戒'가 그 嚆矢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sup>42)</sup>

또한 現代에 와서는 1930年代 李箕永의 <人間수업>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蔡萬植의 <레디 메이드 人生>, 金裕貞의 <금파는 콩밭>, 桂鎔默의 <백치 아다다> 등도 이 부류에 넣을 수 있는 諷刺文學作品들이다.<sup>43)</sup>

그러면 이제 이런 概念을 바탕으로 두고 燕巖小說에 나타난 諷刺性을 考察하기로 하겠다.

## 2. 「兩班傳」에 나타난 諷刺

### － 當代 선비의 墮落·腐敗相 批判

兩班傳은 「燕巖集」別集, 卷八 「放瑠閣外傳」에 紹介된 9篇의 傳<sup>44)</sup> 가운데 네번째에 들어있는 漢文短篇小說로서, 燕巖은 이 作品의 執筆動機를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士迺天爵 士心爲志 其志如何 弗謀勢利 達不離士 窮不失士 不飭名節 徒貨門地 酷蠶世德 商賈何異 於是述兩班.

(선비란 것은 곧 天爵이었으며 선비의 마음은 곧 志가 되는 것이다. 그 뜻이란 어떠한 것인가. 첫째 勢利를 꾀하지 말 것이니, 선비는 비록 몸이 현달하더라도 선비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몸이 비록 곤궁하더라도 선비의 본분을 잃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지금 소위 선비들은 名節을 닦기에는 힘쓰지 않고 부질없이 門閥만을 奇貨로 여

42) 李廷卓, 「韓國諷刺文學研究」, (二友出版社), p. 6.

43) 「세계대백과사전」 29, 동아출판사, 1984, p. 102.

44) 九傳은 馬駟傳, 穉德先生傳, 閔翁傳, 廣文者傳, 金神仙傳, 虞裳傳, 易學大盜傳, 鳳山學者傳을 말한다.

겨 그의 世德을 팔고 사게 되니 이야말로 저 장사치에 비해서 무엇이 낫겠는가. 이에 나는 이 「兩班傳」을 써 보았노라.)<sup>45)</sup>

自序의 內容으로 보면 燕巖은 분명히 當代 兩班의 타락상, 즉 선비답지 못한 행동을 풍자하기 위하여 이 作品을 쓴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作品에서의 풍자 대상은 '선비가 天爵임을 망각한 채 財物과 맞바꿔버린 旌善兩班'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研究에서는 거의가 作品의 주제를 當代 양반의 타락·부패상을 諷刺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文卷 作成의 과정을 통해 賤富는 '참된 自我에 눈 뜰 수 있었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이 양반의 그것보다 더욱 값지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自覺한 人物'이라는 결론을 끌어내어 庶民의 自我覺醒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46)</sup>

그러나 作品의 構造를 면밀히 分析하고, 作品 속에 담긴 作家의 意圖를 穿鑿할 때, 과연 賤富가 내뱉은 말,

已之已之 孟浪哉 將使我爲盜耶.

(그만 그만……. 맹랑합니다 그러. 날더러 도둑이 되라 하시유!)<sup>47)</sup>

한 것이, 과연 庶民의 自我覺醒의 결과인가 하는 의문에 부딪치게 된다.

그것은 이 作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의문이었으나, 本稿에서는 朴箕錫의 말대로 '轉換期인 李朝 後期の 封建體制 解體期の 時代的 狀況에 위치한 登場人物들을 통해 身分葛藤의 모습을 심각하게 反映하고 있다'<sup>48)</sup>는 전제 아래 作品 分析을 시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實學派에 속했던 당시 지식인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燕巖의 경우도 기존질서 내지 제도에 대한 改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속한 제도적 신분과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限界와 갈등을 맞보아야 했다.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45) 「燕巖集」卷八, 別集, 放孺閣外傳 自序, p.114. 번역은 이하 모두 李家源을 따름.

46) 黃浪江, 「朝鮮王朝小說研究」, (檀大出版部, 1978.), 제7장 兩班傳, p. 310.

47) 「燕巖集」, 兩班傳, p. 119.

48) 朴箕錫, 「朴趾源文學研究」, (圖書出版 三知院, 1984.), p. 121.



위해서는 새로운 자기인식과 역사인식이 필요했고, 이것은 결국 士意識으로 나타나 現實追求와 理想과의 갈등 속에서 庶民에 대한 따스한 愛情으로 作品 속에 표현되었고, 더 나아가 作品構造 자체가 당대의 社會相을 생생하게 反映하는 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up>49)</sup>

이 때의 農民들은 農業技術의 향상에 따르는 生産高의 증대, 農業經營 방식의 발전, 商業的 農業生産의 발달 등에 따르는 富의 축적으로 富農으로 발전한 새로운 平民地主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들은 심지어 일정한 양의 곡식을 바치고 姓名이 기재되지 않은 官職授與證인 空名帖을 사서 兩班 身分으로 상승하기조차 하였다. 그 반면에 정권에서 소외된 兩班으로서 小作農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생기었다.<sup>50)</sup>

「兩班傳」의 경우도 作品構造가 社會構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作品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인 ‘양반 신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 역시 당대 社會현실의 모순을 파헤치려는 作家의 의도를 드러내면서 朝鮮後期 身分動搖에 따르는 葛藤의 樣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兩班傳」은 위의 引用에서 나타나고 있는 身分動搖現像이라는 社會構造 속의 모순점을 철저한 士意識 아래 透視하고 있는데, 作品 속의 旌善兩班은 곧 小作農으로 전락하기 직전의 沒落한 兩班의 典型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作品의 構造는, 無爲徒食하다 沒落하여 兩班身分마저 팔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한 旌善兩班과 경제적으로 富를 축적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兩班身分을 買取한 賤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前半部와 이렇게 私적으로 이루어진 兩班身分賣買를 公式的 證書로 작성하기 위해 개입한 郡守의 立卷過程의 後半部 둘로 나눌 수 있다.<sup>51)</sup>

그리고 作品 전체가 철저하게 抑揚과 對照의 妙味가 反復되면서 주제에 이르도록 짜여져 있다.

49) 姜東燁, 「熱河日記研究」, (一志社, 1988), 1. 時代認識과 葛藤, pp. 30~37.

50)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67.), p. 271.

51) 朴箕錫, 앞의 책, p. 122.

작품 첫머리의 “兩班者 士族之尊稱也.”가 끝부분에서 “將使我爲盜耶 掉頭而去 終身不復言兩班之事.”로 매듭지어지는 철저한 對照의 效果를 살리고 있는데 이러한 表現技法은 作品의 主題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作家의 意圖를 보여준다.

먼저 ‘自序’와 ‘兩班傳 序頭 部分의 對比를 통하여 抑揚과 對照의 表現 效果를 살펴 보기로 하자.

A. 士迺天爵 士心爲志 其志如何 弗謀勢利 達不離士 窮不失士.

B. 不飭名節 徒貨門地 酷竊世德 商賈何異

A'. 兩班者 士族之尊稱也 旌善之郡 有一兩班 賢而好讀書 每郡守新至 必親造其蘆而禮之.

B'. 然家貧 歲食郡糶 積歲至千石 觀察使 巡行郡邑 聞糶糶 大怒曰, 「何物兩班 乃乏軍興」 命囚其兩班 郡守意哀兩班 貧無以爲償 不忍囚之 亦無可奈何 兩班日夜泣 計不知所出.

윗 글 A와 B는 「放孺閣外傳」에 실린 自序의 내용이며, A'와 B'는 「兩班傳」의 序頭 部分이다.

이 때 A와 A'에 나타나는 兩班의 모습은 肯定的인 兩班, 있어야 할 兩班, 바람직한 兩班의 모습인데 반하여 B와 B'에서는 장사치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無爲徒食하는, 나약하여 속수무책으로 울기만 하는 否定的인 兩班의 모습을 設定하여 對照의 表現技巧을 한껏 살리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對照의 表現기교는 肯定的인 面 바로 뒤에 否定的인 面을 바로 이어서 배치해 놓은 抑揚의 表現기교로 하여 그 效果를 한층 더 배가시키고 있다.

抑揚과 對照가 교묘하게 배합되어 반복되면서 결국 肯定的인 側面보다 否定的인 側面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燕巖은 이러한 作品構造를 통하여 당대 양반의 타락상을 개탄하고 士階層에 대하여 철저한 自己反省과 覺醒을 逆說的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觀察使에 의해 “何物兩班”으로 욕을 먹은 양반이 그의 妻에 의해 “兩班不直一錢”으로 매도되고, 결국 賤富의 입을 빌려 나타난 바 그대로 ‘盜’의 위치로까지 轉落하는데서도 克明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前半部에서 表現된 賤富의 兩班觀에서도,

兩班雖貧 常尊榮 我雖富 常卑賤 不敢騎馬 見兩班 則跼蹐屏營 匍匐拜庭 曳鼻膝行 我常如此其僂辱也.

양반이란 아무리 가난해도 그 위치는 늘 높고도 영광스럽건만, 우리들이사 남부럽지 않은 부자이지만 갈수록 천하게만 굴어야지 않아. 길을 다닐 때엔 말 한번 거들거리고 타보질 못할 뿐더러 양반만 보면 저절로 기가 푸욱 죽어서 굶실거리며 영금영금 기어가서 돌 밑에서 절하고 코가 땅에 당도록 질질 끌며 무릎으로 기다시피 하여 우리네는 줄창 이런 창피를 입고 있지 않았어.)<sup>52)</sup>

라고 하여 賤富가 지닌 身分上昇에의 慾求 역시 대조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양반과는 달리 ‘늘 비천한 대우와 기가 죽어 굶신거리고 언제나 창피만 당하는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熱望에 불타게 된다.

作品的 後半部는 私的으로 이루어진 兩班身分賣買를 알게 된 郡守가 직접 이 사건에 介入하여 ‘문자문화의 병리(속임수)’<sup>53)</sup>를 利用, 賤富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대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때 작성된 第1文卷과 第2文卷 역시 對照와 抑揚에 의한 것이었다.

第1文卷의 내용은 當行節目 十三則과 禁止節目 二十一則을 設定하여<sup>54)</sup> 철저한 克己와 忍苦를 강요하는, 당시 양반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節目들이다.

絶棄鄙事 希古尙志 五更常起 點硫燃脂 目視鼻端 會踵支尻 東萊博議 誦如水瓢 忍饑耐寒 口不說貧 叩齒彈腦 細嗽嚙津 袖刷鬚冠 拂塵生波 盥無擦拳 漱口無過 長髻喚婢 緩步曳履 古文眞寶 唐詩品彙 鈔寫如荏 一行百字 手毋執錢 不問米價 署毋執轎 飯毋徒髻 食毋先羹 毋流聲 下箸毋啣 毋餌生葱 飲醪毋撮鬢 吸煙毋輔竄 忿毋搏妻 怒毋踢器 毋拳毆兒女 毋罵死奴僕 叱牛馬, 毋辱巖主 病毋招巫 祭不齋僧 爐不煮手 語不齒唾 毋屠牛 毋賭錢.

(앞서 하던 야비한 일은 깨끗이 버리고 옛사람의 아름다운 일을 본받아 뜻을 高尚하게 먹어야 할 것이다. 뿐 아니라 언제나 五更만 되면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 정신을 가다듬어 눈으로 코끝을 슬며시 내려다 보며, 두 발끝을 한데다가 모아 불기를 피고 앉아서 東萊博議처럼 어려운 글을 서슴지 않고 외되 마치 얼음 위에 박 밀 듯하고, 아무리

52) 「燕巖集」, p. 119.

53) 黃涇江, 앞의 책, p. 313.

54) 李家源, 앞의 책, pp. 352~354.

배고프고 살 시리더라도 이것을 잘 참되 자기 입에선 아예 ‘가난타’는 말일랑 내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아래 윗니를 마주 부딪치어 푹푹 소리를 내며 손가락으로 뒤통수를 튕겨 코똥을 키잉하고 편다. 가는 기침이 날 때마다 가래침을 지근지근 씹어 넘기고, 털감투를 쓸 때면 소맷자락으로 그를 털어서 티끌 물결을 복신 일으키고, 세수할 때엔 주먹의 때를 비비지 말 것이며 양치질을 하되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 것이며, 여종을 부를 때엔 긴 목소리로 ‘아무개야’ 하고, 걸음 걸을 때엔 느릿느릿 굽을 옮겨 신축을 딸 딸 끌 것이다. 그리고 저 古文眞寶와 唐詩品彙 같은 책들을 마치 깨알처럼 가늘게 베끼 되 한 줄에 백자씩 마련한 것이요, 손에 돈을 지니지 말 것이며, 쌀값의 오르내림을 묻지도 말 것이며, 아무리 날씨가 무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 것이며, 밥 먹을 때엔 맨 상투꼴로 앉지 말 것이며, 먹기가 시작되자 국물을 맨 먼저 마시어 버리지 말 것이며, 혹시 마시더라도 훌쩍훌쩍하는 흘림 소리를 내지 말 것이며, 젓가락을 내릴 때엔 반을 쥘 어 소리 내지 말 것이며, 생파를 씹어서 암내를 풍기지 말 것이며, 막걸리를 마신 뒤엔 수염을 주욱 빨지 말 것이며, 담배를 땀 적엔 불이 오목 파이도록 연기를 빨아들이지 말 것이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분이 나더라도 아내를 치지 말 것이며 화가 돈히었다 해도 그릇을 차서 깨뜨리지 말 것이며, 여종 남종이 잘못이 있더라도 죽여 죽이지 말 것이며, 마소를 꾸짖되 팔아먹은 주인을 들추지 말 것이며, 병이 들어도 무당을 맞이하지 말 것이며, 제사를 모실 제 중을 청하여 齋 드리지 말 것이며, 아무리 추워도 화롯전에 손을 쬐지 말 것이며, 남과 이야기할 제 침이 튀지 않게 할 것이며, 소백정 노릇을 하지 말 것이며, 돈치기 놀이도 함부로 하지 않는 법이다.<sup>55)</sup>

이상 第1文卷에 나타난 節目들을 가리켜 兩班社會의 僞善의 形式主義를 풍자한 것으로 해석하려는 見解<sup>56)</sup>도 있으나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第1文卷의 內容은 「兩班傳」 전체의 흐름으로 보아 抑揚과 對照의 효과를 살리기 위한 전체, 다시 말하면 第2文卷에 나타나는 포악무도한 부정적 양반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요, 또 燕巖 자신도 이러한 兩班百行의 節目을 몸소 실천했던 것<sup>57)</sup>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양반사회에 보편화된 節目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반면 賤富의 요청에 의해 再作成된 第2文卷에서는 不正과 非理에 물들어 있는 양

55) 「燕巖集」, p. 119.

56) 黃浪江, 李家源의 글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57) 「燕巖集」卷11, 「渡江錄」初六日條에 ‘鼓齒彈腦(이를 부딪치고 뇌를 튕김)’라는 句節이 보인다. p. 155.

반의 모습, 권력에 아부하며 부정한 일을 자행하는 사이비 선비와 극악무도하게 下層民을 괴롭히는 鄉班의 모습을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第1文卷의 내용을 肯定的으로 평가받게 한다.

窮士居鄉 猶能武斷 先耕隣牛 借耘里氓 孰敢慢我 灰灌汝鼻 軍髻太髻 毋敢怨咨。

(궁한 선비라 할지라도 시골에 살면서 힘으로 우격다짐의 일을 할 수 있다. 이웃집 소로 내 밭을 먼저 갈고, 동리 사람을 끌어내다가 내 밭 김을 먼저 매게 하나 감히 누가 나를 괘시하라. 네 코에 잣물을 부어 넣고 상투를 범벅내고 수염을 뽑더라도 감히 원망을 어느 앞이라고 할 것인가.)<sup>58)</sup>

그러나 여기에서도 第2文卷에서 제시된 포악한 양반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이었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앞에서 引用한 「擇里志」의 記錄만 보더라도 執權層에서 밀려난 沒落兩班이 平民으로 轉落하고 있음을 보게 되며, 또 현실적으로 가능했다 하더라도 고을 수령이나 또는 권력과 결탁한 극소수의 兩班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第2文卷의 내용은 당시 양반사회의 고질화된 병폐라기 보다는 第1文卷의 內容을 肯定的인 것으로 만들고 또 주제를 강조하려는 의도 아래 제시된 과장된 표현으로 보아야 하겠다.

이 文卷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도 주제 파악을 위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黃涓江과 朴箕錫은 第1·第2文卷의 관계를 상호 對照的인 것으로 파악하여 '立卷하는 과정에서 賤富는 兩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이질성과 불상용성이 있음을 점차로 깨닫게 되고 결국 平民이 自我覺醒하는 과정을 보인 것'<sup>59)</sup>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박태상은 第1文卷이 풍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중구조-표면구조와 이면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밝혀,<sup>60)</sup> 1·2文卷 사이의 관계를 相互補完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筆者의 견해로는 第1文卷과 第2文卷의 관계를 相補的인 것으로 보고 싶다. 그것은

58) 「燕巖集」, p. 119.

59) 黃涓江, 앞의 책, p. 307.

60) 박태상, "燕巖 朴趾源의 漢文小說",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社, 1978). pp. 141~144.

앞서 밝힌 바와 같이 第1文卷의 內容은 自序에서 언급되고 있는 肯定的인 양반의 모습으로 第2文卷에 나타난 부정적인 兩班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작품 전체를 놓고 볼 때 결국 「兩班傳」은 ‘바람직한 양반의 모습’과 동시에 ‘바람직하지 못한 양반의 모습’을 제시하여 점차 士道를 잃어가는 양반계층의 타락상을 비판, 풍자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해 있는 士階層의 覺醒을 부르짖고 있는 作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作品은 平民의 自我覺醒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自序의 표현대로 旌善兩班과 郡守로 대표되는 兩班階層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보다 本質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그러므로 第1文卷은 第2文卷을 강조하기 위한 전제이며 또 第1文卷이 있음으로 해서 第2文卷의 내용이 풍자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作品 속에 등장하는 人物들을 對比시켜 보면 主人公인 旌善兩班이나 郡守에 비해 오히려 賤富의 모습이 훨씬 動的의요 個性的으로 나타난다. 이는 燕巖小說이 지니는 특징인 近代性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이 속한 士階層에 대한 批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常民에 대한 따스한 愛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애정은 燕巖小說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常民이거나 中人 계급에 속하는 人物로 나타나는 데서 볼 수 있는데, 「廣文者傳」에서도

文甚憐之 身行焉得食 將食病兒.

(廣文은 불쌍히 여겨 몸소 밥을 빌어다가 병든 아이를 먹이려 했다.)<sup>61)</sup>

라 하여 廣文이라는 비렁뱅이가 仁을 지닌 人物임을 내세워, 상대적으로 그보다도 못한 兩班社會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兩班傳」은 당시의 時代的 狀況을 反映하는 個別的 典型인 兩班과 賤富의 모습을 絶妙하게 부각시켜 철저한 對照와 抑揚의 풍자 기교를 동

61) 「燕巖集」, 廣文者傳, p. 117.

원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양반 계층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士階層의 覺醒을 促求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와는 상대적으로 常民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눈뜨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3. 「虎叱」에 나타난 諷刺

— 士大夫의 僞善과 表裏不同함을 批判

「虎叱」은 「燕巖集」 卷之十二 「熱河日記」 關內程史篇에 실려 전하는 作品으로 「許生傳」「兩班傳」과 함께 燕巖의 得意作으로 꼽히는 漢文短篇小說의 白眉요, 또 作者의 말대로 絶世의 奇文이다.<sup>62)</sup>

燕巖의 記錄에 따르면 이 作品은 燕巖 一行이 玉田縣에 도착하여 同行한 鄭進士와 함께 沈有朋이라는 사람의 가게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壁 위에 걸린 한 편의 奇文을 보게 되었고, 주인과의 문답을 통하여 그 作品은 薊州 장에서 사다가 걸어 놓은 것일 뿐 지은이를 알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鄭進士와 함께 베낀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宿所로 돌아와 살펴보니 鄭進士가 베낀 것에는 誤記와 누락이 많아 글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燕巖 자신이 대강 자기 뜻으로 엮어서 한 편의 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sup>63)</sup>

이와 같은 記錄에 따라 이 作品은 일찍부터 作者에 대한 論難이 있어 왔으나<sup>64)</sup> ‘연암이 詩論을 꺼려 자신을 숨기고자 作者를 外人에게 假託한 것일 뿐이지 그 構成方法이나 文體로 보아 연암 자신의 自作’<sup>65)</sup>이라는 見解로 굳어져 있으며 또 설령 中國人의 作品이라 하더라도 연암 자신이 대강 ‘자기 뜻으로 엮어서 만든 한 편의 글’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燕巖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62) 「燕巖集」 卷之十二, 熱河日記, 關內程史, p. 191.

1980年 7月 28日 甲辰날의 記錄에 “...就壁一讀 可謂絶世奇文.”이라는 대목이 있음.

63) 鄭之所贈 無數誤書 漏落字句 全不成文理 故略以己意 點綴爲篇焉.

64) 李佑成은 “虎叱의 作者와 主題”(創作과 批評, 제3권 3호, 一潮閣, 1968)에서 ‘虎叱은 中國人의 原作이 있었으며 燕巖은 이를 敷衍擴大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65) 李家源, 앞의 책, pp. 486~488.

주인 沈有朋이 「베껴서 무얼 하겠는가?」하는 물음에 연암은,

歸令國人一讀 當捧腹軒渠 嗚噓絕倒 噴飯如飛蜂 絕櫻如拉朽.

(돌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번 읽혀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거요. 아마 이걸 읽는다면 입안에 든 밥알이 벌처럼 날아갈 것이며, 튼튼한 갓끈이라도 썩은 새끼처럼 끊어질 것이야.)<sup>66)</sup>

라고 대답했으니, 그 읽혀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였겠는가 하는 점에서 벌써 깊은 意味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虎叱」은 諷刺의 對像이 碩德之儒인 北郭先生이고, 諷刺의 主體는 짐승인 범이라는 점에서, 高麗朝에 起源을 두고 있는, 事物을 擬人化하여 世上을 풍자한 假傳의 傳統을 계승한 作品으로 新小說인 安國善의 「禽獸會議錄」에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이러한 動物寓話에 의한 풍자는 그 역사가 오랜 方法이기도 하다.

이 作品에서 諷刺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나쁨의 근거'인 위선적인 북곽과 탕너 기질의 동리자를, '좋은 근거'인 도덕군자 북곽과 정려 과부 동리자로 변신시켜 표면적으로는 칭찬하고 나쁜 것을 좋게 다룸으로써 反語的(ironical) 효과를 나타내는 수법을 취하고 있다.<sup>67)</sup>」 점인데, 이는 「북곽선생이나 동리자의 행위를 통해 崇高한 것과 卑俗한 것이 결합되어 일종의 부조화가 조화로운 것처럼 자연스럽게 등장하며」<sup>68)</sup> 이러한 극단적인 면이 동시에 한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 作品에서의 웃음은 인간적인 약점의 노출→崇高한 것과 卑俗한 것의 결합→虛無로의 돌변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作品의 構造 分析을 통해 살피기로 하겠다.

「叱虎」의 構造는 세 場面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줄거리를 요약하면,

66) 「燕巖集」, 앞의 책, p. 191.

67) 吳相泰, 「朴趾源 小說作品의 諷刺性 研究」, (螢雪出版社, 1988), p. 77.

68) 박태상, 앞의 책, p. 131.



① 범과 범을 잡아먹는 10여 종의 짐승들, 그리고 佷鬼의 세계인 山 속 이야기로 論議 끝에 儒者가 범의 먹이로 추천된다.

② 北郭과 東里子の 만남을 그리고 있는데, 밤늦게 淫談을 나누다 東里子の 다섯 아들들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들 가운데 있는 본묘구덩이에 北郭이 빠지게 된다.

③ 범을 만나게 된 北郭은 목숨을 구걸하나 범은 儒者の 阿諛, 人間의 妄佞, 靈惡함을 범과 비겨 준절하게 꾸짖는다. 들에 나온 농부의 물음에 北郭은 슬쩍 자기 행동을 合理化 시킨다.

의 3단락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①은 ③의 場面을 만들기 위한 伏線에 해당되며 ③이 곧 이 作品의 絶頂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sup>69)</sup>

한편, 이 作品은 전체가 崇高함과 卑俗함의 兩面的 二重構造를 지니면서 作品의 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二重性은 범을 비롯한 登場人物의 공통적 속성으로 나타난다.

① 虎嘗聖文武 慈孝智仁 雄勇壯猛 天下無敵 然狒胃食虎 竹牛食虎.

② 鄭之邑 有不屑宦之士 曰「北郭先生」行年四十 手自校書者萬卷 數衍九經之義 更著書一萬五千卷 天子嘉其義 諸侯慕其名 邑之東 有美而早寡者 曰「東里子」天子嘉其節 諸侯慕其賢 環其邑數里 而封之曰「東里寡婦之間」東里子 然有子 各其其性.<sup>70)</sup>

위의 ①은 범에 대한 묘사요 ②는 등장인물인 北郭과 東里子에 대한 묘사인데, ①의 범은 온갖 德과 勇猛을 갖춘 위엄있는 존재로 나타나지만 狒胃·竹牛 등 10여 종의 동물들에게 잡아 먹히는, 결코 天下無敵이 될 수 없는 存在이며, 또한 ②의 北郭先生은 ‘손수 교정한 글이 일만 권, 九經의 뜻을 부연하여 엮은 책이 일만 오천 권이나 되어 모든 諸侯들이 사모하는’ 당대 제일의 碩德之儒이나 東里子の 방에 숨어들어 淫談이나 나누는 僞善的인 二重性을 지닌다.

東里子 역시 ‘東里寡婦之間’로 봉함을 받은 守節寡婦이나 각각 姓이 다른 다섯 아들을 둔 淫女로 나타나고 있다.

69) 李源周, 「虎叱」의 諷刺對象, (常山李在秀박사 환력기념논문집, 1972), pp. 5~6.

70) 「燕巖集」, pp. 191~192.

이와 같은 二重性은 궁극적으로 場面 ③에 나타나는 人間의 僞善이나 惡行과 연결되어 한층 諷刺의 效果를 倍加시키고 있다.

그러면 「虎叱」에서의 諷刺 對象은 과연 무엇인가?

場面 ①이 ③을 준비하기 위한 伏線이라면, 場面 ②의 北郭과 東里子が 보여주는 僞善的인 行動 역시 場面 ③에서 범의 叱責을 통해 나타나는 人間의 온갖 추악함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사건에 불과할 것이라 본다.

이와 같은 의도는 이미 場面 ①에서 龔兀에 의해 추천되는 사람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匪角匪羽 黔首之物 雪中有跡 行疎式 膽尾在腦 莫掩其尻.

(빨짐승도 날짐승도 아닌, 머리 검은 것이 눈(雪) 가운데 지척거리는 발자취를 남기고, 꼬리를 보니 머리에 있어 꿈무늬를 가리지 못합니다.)<sup>71)</sup>

人間에 대한 冷笑的인 묘사의 부분으로, 상투는 人間에게는 矜持와 통하는 것인데도 짐승의 꼬리와 同一視하여 인간을 짐승 이하의 次元으로 卑下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虎叱」의 풍자 대상은 단순히 北郭先生이나 東里子が 보여주는 철저한 俗物根性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北郭先生을 향해 퍼붓는 범의 叱責에 나타난 그대로, ‘儒者의 阿諛性, 口號뿐인 三綱五輪, 恩誼 모르는 惡行, 野卑와 醜惡, 人間의 殘忍性 등으로 多樣하여<sup>72)</sup> 人間이 지니는 二重性을 그 풍자 대상으로 삼고 있다.

北郭先生이 東里子の 姓이 각각 다른 다섯 아들들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똥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 순간 심판자인 범이 등장하여 “儒는 諛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儒者諛也.)” 하고 꾸짖으며 인간에 대한 峻嚴한 批判을 가하는 ③의 場面은 이 작품의 풍자 대상이 무엇인가를 克明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1) 「燕巖集」, p. 192.

72) 李源周, 앞의 논문, p. 6.

① 인간들은 말로만 五倫 四綱을 떠들썩, 실제로는 무수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코베이고, 발꿈치 찢리고, 얼굴에 刺字질하고 다니니 이는 모두 五倫을 지키지 못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포승줄과 먹실, 도끼, 톱같은 刑具를 매일 사용하여 供給하기에 겨를이 없어도 그 罪惡을 증지시키지 못한다.

② 虎는 草木, 벌레, 물고기 등 하찮은 것들을 먹지 않고 술같은 좋지 못한 음식은 좋아하지 않으며, 먹기 위해 비굴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③ 너희 人間들은 밤낮 쏘다니며 팔을 걷어 붙이고 노략질하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심한 놈은 돈을 형이라 부르고, 出世를 위해 재 妻를 죽이는 일까지 있으니, 어찌 人倫道德을 논할 수 있겠는가?

④ 虎는 同類를 잡아먹지 않는데, 인간은 가뭄이나 洪水가 나면 서로 잡아먹기를 일삼으며, 전쟁을 일으켜 서로 싸워 흘린 피가 천리를 물들이고, 버려진 시체가 많다고 한다.

⑤ 虎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나 공덕도 잊어버려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며, 운명에 따라 타고난 그대로의 천성을 다하기 때문에 世俗의 이해에 병들지 않으며, 굶주린 자, 病든 자, 喪中인 자를 잡아 먹지 않는 義로운 존재다.

⑥ 인간들은 먹고 산다는 이유로 덧과 함정, 그물, 火砲 등을 만들어 殘虐을 부린 것이 부족하여, 부드러운 털을 쪽 빨아서 아교를 붙여 뽀족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은 대추씨 같고 길이는 한치도 못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징어의 시커먼 물에 적어서 종횡으로 치고 찢러대는데 구불렁한 것은 세모창 같고, 예리한 것은 칼날 같고, 두 갈래 길이 진 것은 가시창 같고, 곧은 것은 화살 같고, 팽팽한 것은 활 같아서 이 兵器를 한 번 휘두르면 온갖 귀신이 밤에 깃을 한다. 서로 잔혹하게 잡아 먹기를 너희들보다 심히 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여기서 ①은 말로만 五倫이니 四綱이니 떠드는 空理空論과 實踐이 따르지 않는 僞善의 形式主義를 비판하며, 상대방을 헐뜯고 刑罰에 처하게 하던 黨爭의 폐단을 지적한 것이며, ②는 自己의 私利私慾을 채우기에 급급한 人間의 추악함을 말하고 있다. ③은 自己의 榮達을 위하여 남의 것을 무자비하게 빼앗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 즉 執權階層의 非人倫道德의 모습이며, ④에서는 자신들의 利益을 追求하

기 위해 同族을 예사로 죽이는 포악성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⑤에서는 義롭지 못한 무리들을 批判하였고, 마지막 ⑥에서는, 붓[筆]으로 만들어 내는 慘禍를 들어 이루어 形言할 수 없을 정도임을 말하고 있다. 즉 士禍와 黨爭 등 權力 다툼으로 무참한 殺戮이 恣行됨을 풍자한 것이다.

따라서, 「虎叱」은 北郭과 東里子라는 俗物的 根性を 지닌 僞學者와 僞善者를 作品 前面에 내세워 온갖 추악함에 물들어 있는 人間社會의 惡行을 批判하고 더 나아가 당시 執權階層에 대한 노골적인 反感을 보이고 있으며, 作品 전체가 고도의 寓意的 手法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

특히 범이 가버린 줄도 모르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北郭이, 마침 밭갈러 나온 농부에게 짐짓 태연하게

吾聞之「謂天蓋高 不敢不踰 謂地蓋厚 不敢不踰」

(내 일찍 들으니「하늘이 비록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비록 두텁단들 얹디디지 앓을소냐」 하엿데 그러.)

라고 응대하여 <詩經>에 나온 글귀로 얼버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끝까지 僞善의 가면을 벗을 줄 모르는 人間의 비열한 속성을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虎叱」에서 구사하고 있는 寓意的 手法은 安國善의 新小說 「禽獸會議錄」에 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虎叱」의 내용과 대비시켜 살펴기로 하겠다.

安國善(1854~1928)은 東洋的 倫理觀을 바탕으로 「禽獸會議錄」에서 여러 動物들의 입을 빌어 人間의 타락상을 공박하고 있는데, 序言, 開會趣旨의 뒤에 第一席 反哺之孝(가마귀), 第二席 狐假虎威(여호), 第三席 井蛙語海(개고리), 第四席 口蜜腹劍(벌), 第五席 無腸公子(게), 第六席 螿螿之極(파리), 第七席 苛政猛於虎(호랑이), 第八席 雙去雙來(원앙), 閉會의 順으로 그 構造가 짜여져 있다. 그 중 호랑이의 입을 빌어 人間의 타락상을 공박한 第七席의 한 구절을 살펴 보자.

도로혀 사름이 사름이게 히를 당함며 살육을 당함며 살육을 당함자이 몇 억만명인지

알 수 업소. ……사람들은 티낮에 사름을 죽이고 짐물을 썰아스며 죄업는 빅성을 감  
육서에 모라너허서 돈밭치면 내여눅코 세업스면 죽이논 것과……각칙 병귀를 발명코야  
군함이니 티포니 총이니 탄환이니 화약이니 칼이니 활이니 호는 동물을 만드러서 짐물  
을 무한히 내바리고 사름을 무수히 죽여서……. 73)

결국 安國善의 新小說에 나타나는 내용도 「虎叱」에서 다 발전한 것이 되지 못함을  
볼 수 있으며, 諷刺의 面에서는 도리어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虎叱」이 「禽獸會議錄」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점은 위의 引用에 나타  
나는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작가 연암의 近代的 意識과 諷刺  
作家로서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이상의 논의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虎叱」은 崇高와 卑俗, 調和와 不調和가 같은  
공간에 동시에 출현하여 二重的 兩面性을 지닌 登場人物에 의해 한것 諷刺의 妙味를  
살리고 있는 絶世의 奇文이며, 또한 폭넓은 대상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 4. 「許生傳」에 나타난 諷刺

— 現實認識과 理想主義 사이의 乖離

「許生傳」은 紀行文 「熱河日記」 卷十四, 「玉匣野話」 속에 들어 있는 作品으로 燕巖  
의 實學思想이 集約되어 나타난 代表作이며 독특한 諷刺構造를 지녀 스케일이 방대  
하고 당대 사회의 전반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注目을 끌고 있다.

이 「玉匣野話」는 그가 燕京에서 돌아오는 도중 玉匣에서 여러 裨將들과 더불어 나  
는 이야기를 記錄하고 있는데, 작품 「許生傳」은 이 자리에서 前代의 譯官 下承業<sup>74)</sup>  
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자, 연암이 이와 관련하여 20세(1756)때 奉先寺에서 尹映이라  
는 老人에게서 들었다는 許生故事를 덧붙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73) 한국문학 연구 총서, 현대문학편 Ⅱ, 「新文學과 시대의식」, (새문社, 1981.) Ⅲ자  
료에서 재인용, p. Ⅲ-55.

74) 작품 속의 下氏는 下承業의 祖父.

이와 같은 記錄을 구태어 남겨 놓은 것은 「虎叱」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現實性이 강하고 또 批判의 강도가 높은 내용을 담은 「許生傳」으로 말미암아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時諱를 피하려는 作家의 意圖라고 보아진다.

이 作品의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누어 지는데 그것은 우선 前半部에서 許生이라는 主人公이 아내의 強迫에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오게 되고, 下氏에게서 萬金を 빌려 여러가지 商行爲로 富를 축적하여 도둑들을 데리고 無人空島에서 理想社會를 건설하려는 試驗을 하는 대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後半部에서는 李滄 대장을 등장시켜 北伐策 三案을 提示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 作品의 풍자 대상을 크게 ①經濟的 側面 ②社會的 側面 ③政治的 側面의 셋으로 나누어 考察하고자 한다.

「許生傳」에 나타나는 諷刺의 樣相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作品의 主人公이며 諷刺의 主體인 許生에 대해서 살피기로 하자.

墨積洞의 許生은 “不蔽風雨”한 草屋에서 “好讀書”할 뿐 生計를 거들떠 보지 않는 남산골 紳님의 生理를 지닌 무능한 선비로서 「兩班傳」에서의 旌善兩班보다 훨씬 모욕적인 욕설을 그의 妻로부터 듣게 된다.

妻甚飢泣曰，子平生不赴舉 讀書何爲，許生笑曰，「吾讀書未熟」妻曰，「不有工乎」生曰，「工未素奈何」，妻曰，「不有商乎」生曰，「商無本錢奈何」其妻恚罵曰，「晝夜讀書 只學奈何，不工不商 何不盜賊」

(하루는 그 아내가 몹시 주려 훌쩍훌쩍 울며 하는 말이, “당신은 한평생 과거도 보지 않사오니 이럴진대 글을 읽어서 무엇 하시려오?” 하였다. 허생은 “난 아직 글 읽기에 세련되지 못한가 보오.” 하고 꺾꺾대곤 하였다. 아내는, “그러면 공장이 노릇도 못하신단 말예요?” 하였다. 허생은 “공장이 일이란 애초부터 배우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소?” 하니 아내는, “그러면 장사치 노릇이라도 하셔야죠.” 한다. 허생은 “장사치 노릇인들 밑천이 없으셔야 어떻게 할 수 있겠소?” 하였다. 그제야 아내는 곧, “당신은 밤낮으로 글만 읽었다는 것이 겨우 ‘어찌할 수 있겠소’ 하는 것만 배웠소그러. 그래 공장이 노릇도 하기 싫고 장사치 노릇도 하기 싫다면, 도둑질이라도 해보는 게 어떻소?” 하고는 몹시 흥분하는 어조로 대꾸했다.)<sup>75)</sup>

75) 「燕巖集」 卷之十四, 「熱河日記」, 「玉匣野話」, p. 298.

책만 읽던 許生의 모습은 非生産人으로서 無爲徒食하던 당시 兩班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許生이 그 妻로부터 “도둑질이라도 하라.”는 叱責을 받기에 이른다. 「兩班傳」의 “不直一錢”이던 모습이 이제 「許生傳」에서는 “盜賊”으로 한층 卑下되고 있다. 그러나 旌善兩班이 속수무책이었음에 비해 許生은 결연히 책을 덮고 일어나 社會로 뛰어든게 됨으로써 이 作品中 諷刺의 主體로 變身하게 된다. 일단 社會現實 속에 生産人으로 뛰어든 許生은 商行爲를 비롯한 모든 行動에서 非凡함과 함께 先覺者로서의 오만함까지 풍기고 있어 讀者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存在가 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아내의 叱責을 당하는 나약하고 無氣力한 양반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許生은 결국 作家 燕巖이 새롭게 變身시킨 의도대로 經濟·社會·政治 등 당시 社會現實 全般을 批判하는 풍자의 주체로, 洪國榮의 禍를 피하여 燕巖狹에 은거하던 作家의 身分으로서의 役割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 許生은 下富者의 집을 찾아가 “내 집이 가난해서 무엇을 조금 시험해 볼 일이 있어 그대에게 만금을 빌리러 왔오. (吾家貧 欲有所小試 願從君借萬金.)”<sup>76)</sup> 라고 하여 萬金을 빌리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을 조금 시험해 볼 일이 있어”라는 대목이다. 許生의 이 말은 후반부에 보이는,

以財賄面 君輩事耳 萬金何肥於道哉.

(채물로써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것은 그대들이나 할 일이지. 만냥이 아무리 증한들 어찌 도를 살지게 한단 말야.)

君何以賈整視我也. (그대 어찌 장사치들로 날 대우한단 말인가.)<sup>77)</sup>

하는 말과 그대로 照應되면서 집을 나선 이후의 모든 行蹟이 어디까지나 ‘시험삼아 해 본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許生은 결국 萬金을 버리고 다시 “不蔽風雨”한 草屋으로 돌아가 전날의 궁핍한 모습이 되는데 이는 許生이 批判的 知性人으로 남아있음을 뜻하며, 또한 作品 속에 나타난 모든 행동에 어떤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제 앞에 언급한 대로 풍자의 양상을 세가지 側面에서 살피기로 하겠다.

76) 「燕巖集」, p. 298.

77) 「燕巖集」, p. 299.

(1) 經濟的 側面에서

下氏에게서 萬金을 빌린 許生은 몸소 商行爲에 뛰어들어 “畿湖之交, 三南之縮口”인 安城에서 “棗栗柿梨柑榴橘柚” 등속의 온갖 과실을 買占하게 되고, 그 결과 “겨우 만금으로써 온나라의 경제를 기울였으니, 이 나라의 얕고 깊음을 짐작할 수 있구나. (以萬金傾之 知國淺深矣.)”<sup>78)</sup> 하고 탄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칼·호미·베·명주·솜 등을 사가지고 濟州島로 들어가 말총을 모두 거두는 方法으로 暴利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買占行爲에 대해서 許生 自身도 작품 속에서

後世有司者 如有用我道 必病其國

(뒷 세상의 나라일을 맡은 이들로써 행여 나의 이 방법을 쓰는 자 있다면 반드시 그 나라를 병들이고 말 게요.)<sup>79)</sup>

라고 말하고 있어 그 폐해를 밝히고 있다.

許生이 商行爲를 두고 李家源은 ‘從前의 重士의인 傾向을 排擊하는 동시에 工·商業的인 職業의 轉換을 提案한 것’<sup>80)</sup>으로 보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許生이 우리나라 經濟의 流通構造의 閉鎖性을 지적하며, 국내는 물론 外國과 무역을 試圖하여 일부 實學派들 사이에서도 등한시 해 온 商業의 重要性을 행동으로 實證시키고자 한 것’<sup>81)</sup>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은 許生이 作品 속에서 下氏와의 對話를 통해, “우리 조선은 배가 외국과 통치 못하고, 수레가 국내에 두루 다니지 못하는 까닭으로 백물이 이 안에서 생겨서 곧 이 안에서 사라져 버린다(朝鮮舟不通外國 車不行城中 故百物生于其中 消于其中.)”<sup>82)</sup>는 말로 買占行爲를 할 수 있

78) 앞의 책, p. 298.

79) 앞의 책, p. 299.

80) 李家源, 앞의 책, p. 640.

81) 車溶柱, “許生傳의 矛盾과 限界性에 대한 考察”, (「한국학논집」 9집, 계명대, 1982)

82) 「燕巖集」, p. 299.



는 不合理한 점을 지적한 것이나, 또 無人空島에서 수확한 곡식을 흉년이 든 長崎島에 팔아 온 백만냥을 거둔 뒤에 “이제야 내 자그만큼 시험해 보았군.(今吾已小試矣.)”라고 한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보아 許生이 兩班들 사이에서 賤視되던 商業에 뛰어 들게 된 것은 重商主義의 表現이라기 보다 商行爲가 農業이나 工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一攫千金할 수 있다는 作家의 의도된 設定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燕巖은 이 作品을 통하여 평소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經濟思想을 作品 속에서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車制」<sup>83)</sup>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레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買占賣惜 行爲가 가능했던 당시의 不合理한 經濟政策의 취약성을 폭로하여 諷刺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許生의 행동은 시험해 본 것일 뿐이라는 限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無人空島에서 나오면서 바닷속에 오십만 냥의 돈을 던져버린 행동은 바로 그가 투철한 職業意識을 지닌 商人이 될 수 없는 한계를 보인 것이며, 卓見을 지닌 批判的 知性人에 머무를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2) 社會的인 側面에서

買占賣惜으로 만금을 벌게 된 許生은 邊山의 도둑 소굴을 찾아들어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

許生曰, 「爾有妻乎」 群盜曰, 「無」 曰, 「爾有田乎」 群盜笑曰, 「有田有妻 何苦爲盜。」 (허생이 “그럼 너희들의 아내는?” 하자, 못 도적은 “없어유.” 한다. “그럼 너희들의 밭은 있겠냐?” 했더니, 이 때에 못 도적은 웃으며 “밭 있구 아내 있다면야 어찌 이다지 괴롭게 도둑질을 일삼겠수?” 한다.)<sup>84)</sup>

이 대화는 당시 時代現實에 대한 冷笑的인 諷刺로 苛斂誅求에 시달려 農土를 등지

83) 「燕巖集」, 卷之十二, 「熱河日記」, 駟迅隨筆, ‘車制’, pp. 173~174.

84) 앞의 책.

고 盜賊이 되어야 했던 流亡民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燕巖은 이를 통하여 不合理한 社會現實을 告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現實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認識하고 있던 批判的 知性人으로서의 許生은 그들을 無人空島로 데리고 가 나름대로의 理想的인 社會를 이루려는 試圖를 보이고 있다. 許生의 理想社會는 흔히 「洪吉童傳」에서 吉童이 세운 碑島國과는 確연하게 區分된다.

이와 같은 限界는 바로 燕巖이 지닌 限界를 보여주는 것으로 反逆을 꾀한 무리는 곧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가혹한 國家政策에서 起因하는 것이라 하겠다. 限界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들 수 있는 것은, 許生이 사공의 안내로 無人空島를 둘러 본 뒤에,

地不滿千里 惡能有爲 士肥泉甘 只可作富家翁. (땅이 천리가 채 못되니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나 토지가 기름지고 샘물이 달콤하니 다만 이곳에서 부가翁의 노릇쯤은 하겠구료.)<sup>85)</sup>

라고 한 탄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分明히 理想的인 社會를 건설할 의도를 가지고 둘러 본 無人空島를 富家翁의 노릇이나 할 땅이라는 탄식으로 얼버무리고 도둑들에게 몇 가지를 깨우쳐 주고 섬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許生의 행동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옳은가? 그것은 곧 理想과 現實 사이에서 內的 葛藤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作家 燕巖의 고뇌하는 모습으로 해석되어야 옳을 것이다. 教條的 權威主義와 허울 좋은 名分論에만 얽매어 空論이나 일삼던 執權層에 대한 批判意識이 결국 無人空島로 設定된 理想으로 영글었으나 現實的인 制約으로 彷徨해야 했던 理想과 現實 사이의 乖離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비록 ‘조그마한 試驗’에 불과했던 理想社會의 모습을 통하여 燕巖은 不合理한 社會政策을 풍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상적 사회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① 花木自開 菓蓂自熟 麋鹿成羣 游魚不驚(모든 꽃과 잎이 저절로 피며, 온갖 과실과 오이가 저절로 성숙되고, 사슴이 떼를 이루었으며, 노니는 고기들은 놀라지 않는다)

② 先富之 然後別造文字 剞製衣冠(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이 문자를 만들며, 옷·갓을 지으려 하였다.)

85) 앞의 책.

③ 兒生執匙 教以右手 一日之長 讓之先食(어린애가 나서 손가락을 잡을 만하거든 바른편 손으로 쥐기를 가르치고, 하루를 일찍 났어도 먼저 먹게 사양하였다.)

④ 有知書者 載與俱出曰「爲絕禍於此島」(글 아는 자를 불러내어 배에 싣고, “이 섬 나라에서 화근을 뽑아 버려야지.”)

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①項은 理想社會가 갖추어야 할 武陵桃源의 모습 그대로이며,

②項은 燕巖이 구상했던 새로운 社會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經濟的으로 富한 社會, 즉 貧民과 盜賊이 없는 社會의 모습을 뜻한다. 荆製衣冠이라 함은 作品의 後半部에 보이는 李滄과의 문답에 나타난 그대로 당시 우리 나라에서 입고 있던 素衣와 廣袖를 排除하고, 상투를 南蠻의 풍습이라 비난한 것과 그대로 통한다고 보겠다.

또한 ③項에서는 空虛한 僞善的 禮法에만 치우친 社會現實을 批判하고 가장 基本的인 道德律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지막 ④項에서는 識字憂患임을 들어 文字의 폐단을 없애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 3. 政治的인 側面에서

作品의 後半部는 北伐論의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던 李滄大將과의 문답을 통해 人材 登用의 矛盾과 무모한 北伐論의 虛構性을 비판하고, 중국과의 무역거래, 用謀, 유학생 파견, 辮髮 및 胡服着用 등 北學派의 思想을 직접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仁祖反正 이후, 朝鮮의 士大夫 階層은 光海君의 現實主義的 外交政策을 포기하고 崇明反淸의 理念爲主의 정책을 고집하다가 두 차례의 胡亂을 겪게 된다. 胡亂 이후 世子를 비롯한 3명의 大君이 불모로 잡혀간 후 淸에 대한 反感은 당대 執權層에게는 하나의 流行病이 되고 말았는데 이러한 反淸思想은 現實을 直視하지 못한 結果라고 보는 것이 바로 北學派의 視覺인 것이다.

이러한 現實認識을 바탕으로 한 燕巖의 現實批判은 궁극적으로 士大夫의 허위에 찬 名分論과 無能으로 集中되어 나타나는데, 經濟的 침체나 北伐 妄想 모두가 역시 士大夫 계층의 무능과 迷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作品 속의

李滄은 바로 부패하고 無力한 士大夫의 상징적 존재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許生은 찾아온 李滄을 門 앞에 세워 놓은 채 卞氏와 더불어 술을 마심으로써 李滄의 存在를 格下시킨다. 이윽고 李滄의 간청으로 許生은 所謂 '北伐策 三案'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北伐策 三案은 당시 執權層을 향한 公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許生이 李滄에게 제시한 세 가지 方案은,

① 我當薦臥龍先生 汝能請于朝三顧草廬乎.

② 汝能請于朝 出宗室女 遍嫁之奪 金墾張維家以處之乎.

③ 選國中之子弟 薙髮胡服 其君子 往赴寶學 其小人遠商江南 覘其虛實 結其豪傑 天下可圖而國恥可雪也.<sup>86)</sup>

의 세 가지로써, 첫째 항목에서는 人材 登用策의 누적된 폐단과 勳戚輩의 勢道를 지탄 공격하고 있으며,

둘째 항목에서는, 明將의 後裔와 國婚을 맺게 하자는 實現不可能한 조건을 제시하여 所謂 北伐主義에 대한 嘲笑를 보내고 있다.

또한 세번째 조건은, 胡服을 입히고 변발하여 淸의 虛實을 엿보아야 함을 강조하여 北伐論의 虛勢와 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士大夫들에 대한 지탄을 퍼붓고 있다.

이 세가지 조건은 당시의 社會的 분위기로 보아 李滄에게는 모두가 애당초부터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의 나열이었고, 미리부터 상대방의 意中을 간파하고 있는 許生으로 하여금 마음껏 상대를 冷笑와 기롱으로 공략하도록 짜여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許生은 執權士大夫 階層의 實現不可能한 名分論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現實參與를 통해 爲政者를 도와 줄 생각은 처음부터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許生傳」의 時代的 背景은 17世紀 中半으로 朴趾源이 살았던 시대와는 1世紀의 거리가 있으나, 연암은 이 작품을 통하여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집권층에 대한 현실적 비판을 간접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

86) 앞의 책.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許生傳」은 그 諷刺 對象이 餘他의 다른 作品에 비해 독특한 면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 작품에서의 풍자구조가 스케일이 방대하기 때문인데,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利用厚生을 부르짖은 燕巖의 냉철한 現實認識의 결과요, 또 이를 바탕으로 한 實學思想의 集約된 표현이기 때문이다.

燕巖은 純粹와 知性으로 무장한 許生을 諷刺의 代辯者로 내세워 자신이 지니고 있던 實學思想을 소신껏 펼쳐낸 셈이다.



## V. 結 論

燕巖文學의 近代性을 들어 韓國 近代文學의 起點을 18世紀 英正祖 時代로 소급해야 한다는 論議가 學者들 사이에 계속되어 왔다. 이같은 論議는 1930年代 林和가 주장했던 移植文化論이나 1950年代 傳統斷絶論에 대한 反論에서 出發하여, 우리의 近代라는 概念이 단순히 新文學期의 서구문화의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李朝社會의 構造的 矛盾을 文字로 표현하고 그것을 克服하려 했던 英正祖 時代를 起點으로 잡아야 한다는, 이른바 國文學 自體의 傳統에서 찾으려는 努力이기도 하다.<sup>87)</sup> 英正祖 時代를 起點으로 잡는다는 말은 곧 近代意識 내지는 近代指向의 의식을 담고 있는 燕巖의 文學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몇 가지 理由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平民地主와 廣作農의 출현, 小作農으로 兩班이 전락하는 등의 身分制度의 혼란이 일어난 시기로, 이러한 變化는 곧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해소하려는 한국사회 자체의 動的 能力이다.

둘째, 燕巖小說에서의 주된 테마가 되는 商工業의 발달에 따른 資本主義의 形成期이다.

셋째, 沒落한 士階層에서 싹튼 實事求是派의 成立으로 당시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새로운 탐구와 改革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넷째, 庶民文學의 융성을 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人間平等에 대한 庶民의 自覺과 慾望이 노출되고 있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燕巖文學이 지니는 文學史的 位置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本稿에서는 燕巖小說에 나타난 諷刺의 樣相을 考察하기 위하여, 作者가

---

87) 金允植·김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1973), p. 20.

처했던 時代的 背景과 그 속에서 形成된 燕巖의 思想 및 文學觀을 살피고, 또 그를 바탕으로 作品 속에 나타난 諷刺性을 作品의 構造分析을 통하여 추출하려는 努力을 기울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압축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燕巖의 小説은 利用厚生의 實學思想과 긴밀한 聯關을 지니면서 朝鮮後期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構造的 矛盾을 文字 표현을 통해 해결하려는 강렬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2) 燕巖은 타고난 革命的 氣質과 科學에 기초한 世界觀을 바탕으로 '法古勗新·文以寫意·철저한 리얼리즘·日常用語의 적극적인 受容', 그리고 '合變之機'의 文學觀을 作品에 적용하여 우리 문학에 새로운 문체의 출현을 가져오게 했다.

(3) 燕巖小説에 나타난 近代意識과 날카로운 諷刺는 치열한 作家意識의 所産이며, 燕巖은 諷刺의 참뜻을 터득하고 多樣的 諷刺의 技法을 作品 속에서 구사하고 있다.

(4) 「兩班傳」은 처음부터 끝까지 抑揚과 對照의 反復을 통하여 李祖後期 社會의 특징인 身分葛藤의 樣相을 反映하고 있는 作品으로, 肯定的인 兩班의 모습과 否定的인 兩班의 모습을 제시하여 否定的인 兩班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고, 특히 相補의 關係로 연결된 第1·2文卷을 對備시켜 士階層의 覺醒을 促求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常民에 대한 따스한 애정을 바탕으로 그들 세계를 나름대로 再認識하고 있다.

(5) 「虎叱」에서는 崇高한 것과 卑俗한 것이 동시에 출현하는 反語的 諷刺 技法을 구사하고 있으며, 二重的 兩面性을 지니는 人物들이 벌이는 사건은 세 장면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 둘째 장면은 모두 作品의 絶頂인 셋째 장면을 향하여 集約된다. 또한 범의 입을 통하여 人間세계의 추악함과 당시 집권계층을 풍자하고 있는데, 安國善의 신소설 「禽獸會議錄」과 內容上 유사함을 보여 그 영향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6) 「許生傳」은 實踐的 知性人인 許生을 통하여 作家가 지닌 實學思想을 펼쳐내고 있는 대표작으로 그 풍자성을 세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① 경제적 측면~許生의 商行爲를 통해 買占에 의한 폭리가 가능했던 경제정책의 不合理를 비판하면서 交通기관的 발달과 外國과의 무역을 통해 나라의 富를 축적해야 한다는 작자의 經濟思想을 보여 준다.

② 사회적 측면~현실과 이상과의 乖離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현실에서의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無人空島로 설정된 이상사회를 그려내고 있으나 시도에만 그치고 말아 신분적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限界를 보이고 있다.

③ 정치적 측면~北伐論의 실질적 책임자인 李崐과의 대화를 통해 人材登用의 모순점과 무모한 北伐論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用謀, 유학생 파견 등의 勳을 제시하고 있다.



## 參 考 文 獻

### 〈資料〉

- 朴宗采, “나의 아버지 朴燕巖(原題: 過庭錄)”, 文學思想 20, 21. 1974.  
「세계대백과사전」 29, 동아출판사, 1984.  
「燕巖集」全 影印本, 景仁文化社, 1984.  
「熱河日記」上·中·下, 大洋書籍, 1978.  
齊藤勇, 「世界文學辭典」, 研究社, 1956.  
「擇里志·北學議」, 大洋書籍, 1978.  
「韓國古典文學5」, 普成文化社, 1974.  
한국문학연구총서, 「新文學과 시대의식」, 새문社, 1981.

### 〈論著〉

- 姜東燁, 「熱河日記研究」, 一志社, 1988.  
——, “朴燕巖의 社會批評樣相”, 「東岳語文論集」第十五輯, 1981.  
姜萬吉, 「韓國近代史」, 創作과 批評社, 1984.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二友出版社, 1981.  
金英東, “燕巖朴趾源의 文學觀”, 「東岳語文論集」第十五輯, 1981.  
金允植·김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1973.  
金一根, “燕巖小說의 近代的 性格”, 경북대論文集 第一輯, 1956.  
閔丙秀, “朴趾源文學의 研究史의 檢討”, (「韓國學報」13輯) 一志社  
朴箕錫, 「朴趾源文學研究」, 圖書出版 三知院, 1984.  
朴趾源外, 「韓國의 實學思想」, 三省出版社, 1983.  
박태상·설성경,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社, 1978.  
成賢慶外,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社, 1983.

- 蘇在英, 「虎叱」再論, 「崇田語文學」2호, 崇田大, 1973.
- 吳相泰, 「朴趾源小說作品的 諷刺性 研究」, 螢雪出版社, 1988.
- 李家源, 「燕巖小說研究」, 乙酉文化社, 1965.
-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7.
- 李東歡, 「朴趾源論」(「燕巖研究」, 車溶柱편), 啓明大出版部, 1984.
- , 「燕巖史上的 理念的 범주와 反朱子主義性」, 文學思想 29, 1975.
- 李相佰, 「韓國近世史後期篇」, 震檀學會編, 乙酉文化社, 1965.
- 李商燮, 「언어와 상상」, 文學과 知性社, 1980.
- 李佑成, 「虎叱의 作者와 主題」, 創作과 批評 제3권 3호, 一潮閣, 1968.
- , 「實學의 社會觀과 漢文學」, 「韓國思想大系」(1), 成大大同文化研究院, 1973.
- 李源周, 「虎叱」의 諷刺對象」, 常出李在秀박사환력기념논문집, 1972.
- 丁奎福外, 「韓國古小說研究」, 二友出版社, 1983.
- 張德順, 「漢文小說의 再認識」, 創作과 批評, 31호, 1974.
-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知識產業社, 1982.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 陳寧寧, 「朝鮮朝 實學派文學과 清代文化와의 聯關性에 關한 研究」, 建國大博士學位論文, 1987.
- 車溶柱, 「許生傳」의 矛盾과 限界性에 대한 考察」, 「한국학논문집」9집, 계명대, 1982.
- 千寬宇, 「韓國史의 再發見」, 一潮閣, 1977.
- 한국고전문학회編, 「古典小說研究의 方向」, 새문社, 1985.
- 한국고전문학회연구회編, 「近代文學의 形成課程」, 文學과 知性社, 1983.
- 黃浪江, 「朝鮮王朝小說研究」, 檀大出版部, 1983.
- Arthur Pollard 著, 宋洛憲譯, 「諷刺」, 서울대학교出版部, 1982.
- René wellek & Austin Warren 著, 李京洙譯, 「文學의 異論(Theory of Literature)」, 文藝出版社, 1987.

---

<Abstract>

## A Study on the Satire in Yŏn-am's Novels

Kim Kwang-soo

*Korean Language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yŏn Yong-joon

The primary purposes of this works are to find consequences on Yŏn-am, Park-chiwŏn (燕巖 朴趾源(1737-1805))'s viewpoints to the satiric patterns appeared in his Chinese characters short stories -- 'Yangban-jŏn(兩班傳)' 'Ho-chil(虎叱)', and 'Hŏlsaeng-jŏn(許生傳)', having a strong connection to Sil-hak(實學 : the Practical Science for public welfare), which had marked sharpest critics on the structural inconsistency and social backgrounds during the latter period of Yi-Dynasty. The fruits of this works are as follows;

I. Yŏn-am's modernism and the satiric sharpness in his writings are the proudcts of shrewd, bright sense of his. He showed us his ideas of various satirical patterns by realizing the true meanings on social satire.

II. Yangban-jŏn reflected two different aspects of positional conflicts of his contemporaries through paradox and repeating contrast approach. By introducing the affirmative and the negative viewpoints of the upper class, Yŏn-am required Yangban(the upper class)'s awaking from ignorance urgently. On the contrary, he showed new affectional understandings to the

---

※ A thesis submittee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9.

common class.

Ⅲ. Ho-chil criticized the ugliness and hypocrisy of the upper class in those days through allegorical and paradoxical expression based on the double-faced characters between holiness and vulgarity, the bright and the dark.

Ⅳ. Hǒhsaeng-jǒn expressed Yǒn-am's opinion on Sil-hak by presenting the practical character-Hǒhsaeng-the very man of all intelligence in it. Showing the economical disagreements, he described conflicts between realities and idealism of his economical thoughts, on welfare of the nation. In his writings, he described Hǒhsaeng's trial of constructing the ideal society as a vacant promised land filled with all of the nature. And then he criticized the inconsistency of enlisting talents for public service from political terms and the reckless attempt to conquer the North (Chǒng-Dynasty) at the time.

